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월 7일 월요일 (음 12월 2일) 제22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방공기업 채용비리에 '패널티'

도내 출연기관도 포함
전북도 올 경영평가 본격화
기관 관리 소홀 문제 방지
21개 기관이 평가대상
경영개선사항 도출에 중점

전북도가 도내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올해 경영평가에 본격 나선 가운데 도덕적 해이 및 관리소홀에 대한 패널티를 신설해 '채용비리' 등 기관 관리 소홀 문제를 적극 방지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올해 경영평가 대상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출연기관 등 경영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1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는 14개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1개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일정규모 이상의 위탁·보조기관 6개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점검을 추진한다.

일회성 평가로 끝나는 경영평가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써 기관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간 후속조치 사항으로 기관장 연봉 및 임



전북기독교연합회 신년 하례회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4일 전주 왕의지일에서 열린 2019년 전북기독교연합회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신년 축사를 하고 있다.

직원 성과급 결정, 기관장 인사상 불이익, 부진기관 경영개선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또 새롭게 라·마등급 기관 정원 증원시 패널티 부여와 직원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평가지표 개선사항으로는 평가 대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부지표

배점 차등적으로 경제산업유형은 수익성 지표, 사회복지유형은 공공성 지표를 각각 강화한다.

특히 도덕적 해이 및 관리소홀에 대한 패널티를 신설해 채용비리 등 기관 관리 소홀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윤석중 도 성과관리과장은 "공공기

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기관 본연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후 "도는

2019년도 경영평가기본계획에 따라 1월 중 외부위탁기관을 선정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에도 지속적인

출연기관 등 경영개선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바다 현장에 강한 해경 만들 것"

서정원 군산해경 서장 취임

군산해양경찰서 새 사령탑으로 취임한 서정원(49) 총경이 "안전하고 바다 현장에 강한 해경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 서장은 지난 4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열린 '제26대 군산해양경찰서장 취임식' 행사에서 "바다 안전은 해양경찰의 사명이자,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안전한 바다와 현장에 강한 군산 해양경찰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 출신인 서 서장은 군산 임피중학교,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8년 경찰 간부후보생(46기)으로 해양경찰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 후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실 조직관리팀과 해양경찰 교육원 건설 추진 팀장, 국민안전처 중앙재난난



전상황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 등 해경 내외부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2017년 3월 총경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해양경찰청에 서 보유하는 모든 장비를 총괄하고 개발하는 장비기획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전천후 구조 보트'를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업무 성과를 보여왔다.

특히, 평소 모든 업무에서 전문성과 수준 높은 역량을 갖추는 '업무 시스템화'를 강조하며, 뛰어난 지휘 능력과 차분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주위에 따르는 인제가 많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25대 군산해양경찰서 박종묵 서장은 이날 임명식을 갖고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군산=김정훈 기자

한옥마을 파노라마 안내판 설치

전주시 기린공원 치명자산 정상부에 전주한옥마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파노라마 안내판이 설치됐다.

완산구는 총 1억2000만원을 투입, 기린공원 등산로를 정비하고 치명자산산지 주변 중바위에 폭 3.5m의 원형 데크 전망대와 파노라마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망대가 설치된 곳은 바위들이 운치를 자아내는 곳이자 기린봉에서



치명자산산성지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중간 휴식처로, 벌써부터 많은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송호철 기자

'영화의 도시' 전주엔 촬영 열기로 '후끈'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가 영화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사)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지난해 한국영화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총 64편의 영화·영상물 촬영을 유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송강호 주연의 '나랏말싸미', 2018년 극장가를 쏘비로 물들인 '창궐' 등의 영화가 전주에서 촬영됐다.

또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올해는 이선균·설경구 주연의 영화 '킹메이

기생충'·'창궐' 등 작품 촬영, 올해 '킹메이커' 등 촬영 위해 방문 예상

키가 전주 로케이션을 타진하는 등 많은 영화인들이 촬영을 위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경우 올해 이병헌·이성민 주연의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시작으로 이미 205일이 예약되는 등 올해도 영화인들의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지난해 J2 실내스튜디오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운

영일수(668일/1 실내스튜디오·J2 실내스튜디오·아외세트장 합산)보다 55일이 더 많은 723일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주영상위는 영화촬영 지원과 함께 올 한해 지역 영상산업기반 조성과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감독들의 성장과 제작활동을 지원하는 '전주 단편영화 제작지원' △지역의 우수한 인력들의 장편영



영화 '창궐' 제작 현장

화에 대한 도전을 응원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전주 지역영화 기회개발' △지역의 콘텐츠를 보존하고 발굴하기 위한 '전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영화의 기본인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인 '전주시나리오스쿨' △전주지역 영상문화예술 지원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전주 영상콘텐츠 구축' 등이다.

올해는 제작자에게 장편영화제작의 기회를 주는 '지역영화제작지원' 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또, 단편영화제작에 관심은 있지만 접근이 어려운 예비창작자들을 위해 이를 도와줄 '영화영상제작 슈퍼바이저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주영상위는 올해 전주시민들이 문화가 있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지역영상문화지원 사업으로 △전주 영상관련 동아리 지원 사업인 '전주 영상콘텐츠 구축' 사업도 전개한다. /송호철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